

노인병 인정의, 기타 세부 및 분과전문의의 자격기준 -의사, 전문의,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인증의, 인정의-



민 양 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Geriatric subspecialist-What is difference between a doctor, specialist and subspecialist.

Yang-ki Minn

Departmen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t Heart Hospital.

All medical treatment in Korea can be done only with a doctor's license. Although medical specialists are recognized in the medical law, there are no medical practices that can be performed exclusively by specialists. In Korea, a subspecialist is not a license issued by a government. Because it is not managed in the government, many subspecialist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a certain standard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the surge of the subspecialists. There are currently 26 subspecialists certified by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Key Words: Doctor, specialist, subspecialist,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란 의사와 전문의 2종류만 존재 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지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인증의 같은 말들이 쓰이기 시작 하였고 이것들을 획득하여야 하는지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 하였다. 2017년 대한신경과학회의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는 노인병세부전문의 추진 이었다. 대한노인병학회를 중심으로 가칭 노인병세부전문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적극 반대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의사, 전문의,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인증의, 인정의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의사, 전문의,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인증의 중 법률에 언급된 면허의 종류는 의사와 전문의 둘 뿐이다. 의료법상 의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이다. 의사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 면허만 있으면 Radiotherapy나 Open heart surgery를 하여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의료법 77조 에 보면 전문의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라는 말만 나온다. 즉 전문의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은 전문과목 표시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단 몇몇 진단서 발급에 전문의의 소견을 요구 하기는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간판)에 표기 할 수 있는 내용도 제한 하고 있는데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만 진료과목으로 표기 할 수 있다. 면허종류도 표기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면허는 의사와 전문의 2가지만 있으므로 간판에 OO분과전문의, OO 세부전문의, OO인증의 등으로 표기 할 수 없다.

전문의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며 현재 내과, 신경과 등 26개 과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문의가 되려면 수련병원 (예방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는 수련기관)에서 4년의 (가정의학 3년)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병

Yang-ki Minn

Departmen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t Heart Hospital.

Tel: +82-2-829-5125 Fax +82-2-847-1617

Email: yangki2@hallym.or.kr

Table 1.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in Korea

학회명	세부 분과 전문분야명
대한내과학회	내과 소화기분과 내과 순환기분과 내과 호흡기 분과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내과 혈액종양분과 내과 감염분과 내과 알레르기분과 내과 신장분과 내과 류마티스분과
대한수부외과학회	수부외과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분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및호흡기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대한소아심장학회	소아청소년심장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대한외상학회	외상외과
대한외과학회	외과 간담취분과 외과 대장항문분과 외과 소아분과 외과 위장관분과 외과유방질환분과

전문의를 만들고 싶어도 법률적 개정이 있어야 하고 설사 법률이 개정 되었다 손 치더라도 4년의 수련이 필요 하다.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의, 인정의는 모두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이다. 법률적으로 치면 다 같은 지위에 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자생한 세부전문의제도가 환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불법적 표방을 하거나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의료계 내 반목과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감지되었다. 이에 2001년 2월 22일 대한의학회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각 분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학회에서는 세부전공전문의 제도는 「의학회와 관련 학회들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학문 발전 이외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의학회 산하에 세부전문의자격 인증관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26개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후 의학회에서는 유사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및 자격 남발을 하지 않도록 회원학회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어서 2001년 8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는 공동명의로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에는 세부전문의 자격인증에 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당부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의학회에서는 「세부전문의제도 인증규정 및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였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세부.분과전문의의 발급 주체이다. 의사,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주체는 국가이다. 세부.분과 전문의의 발급 주체는 각 세부.분과 학회이다. 무수히 많은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 중 대한의학회가 정한 인증 규정을 만족한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세부.분과 전문의 이다. 세부·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하며, "분과전문의"와 "세부전문의"로 구분한다. 즉 하나의 학회에서 분리되면 분과전문학회/전문의 (소화기분과 전문의 등) 2개 이상의 전문의학회가 모여 만든 세부전문학회에서 배출되면 세부전문의 (중환자 전문의 등) 이다. 현재 대한의학회에서 인증된 세부.분과전문학회(전문의)는 Table 1에 명시 하였다.

대한의학회의에서는 세부.분과전문의의 목적을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 하였다 즉 자기개발 및 자기 만족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자격이라는 말이다. 또한 대한의학회 규정에는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2)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3)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4)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라고 명시 하였다. 즉 관행적으로 병원 진료 안내에 붙어 있는 소화기내과 000교수, 신장내과XXX교수 등은 대한의학회의 뜻에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인증의, 인정의는 각 학회 혹은 단체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격이다. 이것들은 따지고 보면 세부.분과전문의와 같은 등급의 민간자격증이다. 다만 세부.분과전문의는 우리 스스로 우리학회 (예를 들어 대한노인신경학회) 보다 공신력이 있다고 믿는 대한의학회의 규정에 맞추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따지고 보면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노인병학회에서 노인병세부전문을 만들던 안 만들던 상관할 필요도 없고 상관할 자격도 없다. 다만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반대한 것은 대한의학회에서 스스로 정한 「세부전문의제도 인증규정 및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 규정」을 무시하고 노인병학회에서 만들려고 시도한 노인병전문을 인증 하려 하였기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 규정을 지키자고 한 것 뿐이다.

결론은 나라에서 인정한 면허는 의사와 전문의 뿐이고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 면허만으로 할 수 있다. 전문의가 가지는 유일한 혜택은 전문과목 표시이다.

참고문헌

1.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The regulation in the Management of Accreditation Committee for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2002, <http://www.kams.or.kr/>
2. Shin YS, A model of accreditation system for medical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0; 53(3): 184 - 188